

《 우리들의 블루스 》

씬 1. 프롤로그.

◆ 은기역할(대사)로만 연기해 보내주세요~

1, 캠핑장, 낮

만수 은기 해선, 유치원 학부모 두 팀과 함께 캠핑을 와서, 세숫대야에 물받아 학부모들과 아이들이 얼굴을 박고 누가누가 더 오래 버티나, 숨참기(잠수) 놀이를 하는 상황, 화면, 블랙에서, 호루라기 소리가 들리고,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동요 '멋쟁이 토마토(다른 동요도 가능)'가 시작되고, 박수 소리가 들리면서, 카메라, 물 받은 대야 속에 얼굴을 박는 만수의 모습으로 시작하는

만수 (신난) 은기야, 아빠가 이겼다!
은기 (신나) 울 아빠가 이겼다 은기가 이겼다!
해선 (웃고, 어이없게 돌을 보며) 이제 그만 밥 먹자! 그만해!

※ 점프컷 >

만수, 은기를 무등 태우고, 신난, 느린 화면,

만수 (신난) 은기야, 아빠가 이겼다!
은기 (신나) 울 아빠가 이겼다 은기가 이겼다!

2, 텐트 밖, 밤,

해선, 졸린, 텐트 안에서 하품하며 잘 준비하는,
만수, 은기를 안고, 캠핑 의자에 앉아, 하늘의 별을 보는

은기 (가만 큰 별을 보며) 저게 진짜... 뽀뽀야?

만수 (담담하게, 친구에게 대하듯, 툭툭, 너무 애한테 말하는 것 같지 않게 그럼. 저 별이 얼마 전에 차에 치여 하늘 나라 간 우리 강아지 뽀뽀야. 그리고, (멀리 별을 가리키며) 저건 작년에 죽은 금붕어 빨강이, 그리고 저건, 니가 지지난달에 길가에서 본.. 검은 고양이.

은기 (별을 진지하게 보는) 그럼 나중에 아빠, 엄마, 은기도 죽으면 별 돼?
만수 (은기 보고, 웃으며, 담백하게) 별 되지. 반짝반짝! 은기야, (별들을 가리키며) 저 별은 아빠 형들이 다. 저 별은 아빠가 어려서, 흥역 았다 죽은 쌍둥이 첫째 둘째 형, 그리고, 셋째 형, 그리고, 저 별은 아빠의 아빠, 은기 할아버지.

은기 (별만 보며) 죽으면 별 되면, 안 슬픈 거네. (만수 보며) 이쁜 별 되고, 이렇게 맬 보니까?
만수 (웃고) 그럼.

은기 그럼 나도 뽀뽀 죽었어도 안 슬픈 거네? (별 보며) 저 별 보면 되니까?
만수 (웃고) ㅋㅋㅋ 맞았어! (하고, 은기 볼에 입맞추고)

은기 (별 보다, 달 보며) 아빠, 그럼 달은 누가 죽어 된 거야?
만수 (보름달 보며, 무덤덤히) 달은.. 누가 죽어서 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달이야. 별들을 지키고, 사람들의 소원도 들어주고.

해선 (졸린, 만수 옆에 와 앉으며, 만수 귀에 대고, 편안한 농담, 안 웃고) 그만구라까라, 애한테.
만수 (해선에게, 친구처럼) 넌 빠져라. (은기에게) 은기야, 내년 봄에 꽃필 때 제주 가면 아빠가 어디 데려간댔지?

은기 달 백 개 있는데.
만수 백개는?
은기 열 개가 열 개.
만수 ㅋㅋㅋ, 맞았어!
해선 (만수 보고, 어이없이 웃으며) 점점. (은기에게) 은기야 아빠 믿지 마. 달은한 개야.
만수 (은기에게) 아빠 거짓말해, 안 해?
은기 (웃으며) 안 해, 캠핑도 온다고 하면 오고,
만수 (은기의 볼을 꼬집고, 웃고) 그지, 아빤 거짓말 안 하지?
해선 (만수의 어깨에 기대서 달 보는) 진짜 제주 갈 거야? 난 여기 목포가 좋은데.

만수 (아랑곳없이, 은기에게 그 백 개의 달을 보고 소원을 빌면, 아빠가 뭐라 그랬어
은기 (달을 보며) 백 개의 소원이 한꺼번에 이뤄진다고, 은기 수영도 잘하고, 은기 좋아하는 돌고래도 보고, 아빠도 멀리멀리 일 안 가고, 맬 은기랑만 놀고... 엄마는 은기 안 혼내고, 안 짜증 내고, 외할머니 허리도 안 아프고,

* 점프컷 - 은기의 환상1>

은기가 달을 보는데, 하나의 달이 죽 옆으로 길게 백 개의 달이 되는,

* 점프컷 - 현실 >

은기, 흘린 듯 멍하니 달을 보는데(웃지는 않는),

만수 (달 그림 위로, 대사) 또 거기 제주엔 세상에서 젤 힘이 센 은기 친할머니, 춘희할망이 있고, 알지? 제주 할머니? 재작년에 간거 기억나지?

은기 (만수 보고, 고개 젓는)

만수 핸드폰으로는 자주 봤잖아? 기억 안나?

은기 (고개 끄덕이고) 나. 근데 제주 할머니 진짜 아빠보다 힘세?

만수 그럼. 아빠는 짹도 안 되지.

은기 (신기한) 우와,

* 점프컷 - 바닷속, 은기의 환상2》

1) 춘희가 남자를 구해, 수영해 물 위로 올라가는 모습.

만수 (E) 아빠보다 힘센 제주 춘희할망은, 아빠 같은 큰 남자 어른도 바다에서 구하고, 또 구하고, 또 구하고,

2) 춘희, 큰 문어를 갈고리로 찍어 들고 물 위로 오르는,

만수 (E) 아빠보다 더 큰 문어도 한 손으로 잡고,

3) 돌고래, 수영을 하고, 멀리 춘희, 돌고래가 수영하는 걸 보며, 웃으며, 옆에서 수영해 가는,

만수 (E) 돌고래랑 친구라서 돌고래랑 같이 맬맬 수영을 하고 놀고,

* 점프컷 - 텐트 안, 밤, 현실 >
해선, 자고, 은기, 만수 누워 있는,

은기 (안졸린, 만수에게) 우와... 또?

만수 (졸린) 물에선 아빠보다 더 오래오래 숨도 잘 참고,

은기 (신기한) 또?

만수 춘희할망은, 맬.. 은기 무등도 태워주고, 제주에서도 바다에서도 대장이고..

은기 대장 우와!

만수 (졸린, 대충대충 말하는) 그래서 엄마도 아빠도 춘희할망한테 절대 못 이기고.. 싸움하면 다 지고.. 춘희할망이 다 이기고.. 그리고, 아빠, 제주 가면 사람들 소원 들어주는 달배타고...

은기 또?

만수 (자는)

은기 아빠, 또?

만수 (자는)

은기 (자는 만수를 보는데, 만수의 팔뚝에 한문 일심이 보이는, 가만 그걸 보고, 만지고, 고개 돌려, 천장 보고, 작게) 제주 가고 싶다..아빠 달배 타고.. 난달백개 보고... 춘희할망도 보고.....

* 점프컷 >

누워 있는 은기와, 천장에 수영하며 가는 춘희의 모습 한 화면에 잡히면서,

3. 작은 빌라 앞, 다른 날, 낮,
은기(속옷 차림, 머리는 산발이다), 해선에게 안겨, 베란다 창을 열고, 소리치는,

은기 (울며) 아빠, 가지 마! 아빠 가지 마!

* 점프컷>

만수, 덤프트럭 운전석에 앉아, 은기를 보며, 소리치는,

만수 (웃으며) 은기야, 아빠, 서른 밤 자면 또 오잖아! 열 밤씩, 세번!

은기 (울며) 아빠! 가지 마! 아빠!

해선 (은기 달래려는 맘, 속상해, 버럭) 그냥 당신이 가! 말 시키지 말고! 조심하고, 다치지 말고!
나랑 은기 너밖에 없다! 조심!!

만수 (웃으며) 그래, 해선아! 은기야! 잘 있어! 아빠 돈 많이 벌어 올게! 제주 가서 달배 타자!
(하고, 차(밝은 은기 해선 만수의 사진과 춘희가 해녀복 입고, 밝게 찍은 사진이 펜던트에 붙어 있는)에서 핸드폰으로 신나는 트로트('어머니', 빠른 버전으로)를 틀어놓고, 손 흔들고 가는, 노랠 부르며, 밝은)

은기 (울며) 아빠 아빠!

4. 도로, 낮,
만수, 노래 부르며, 열심히 운전해 가는, 차가 언덕을 넘어가면,
그 모습 위로, '광!' 하는 소리 들리는,

5. 마트 안, 낮,
해선(유니폼), 울며(만수의 사고 전화 받고 가는), 에스컬레이터를 뛰어 내려가는,

6. 유치원, 낮,
은기, 친구들과 춤추고 노래하는, 신나는 모습,

7. 응급실 안, 낮,
만수 의식 없이 피가 낭자한 채, 침대에 누워 있고, 의사, 제세동기로 심폐소생술을 하는,
만수의 몸이 침대에서 튀어 오르는,
8. 바닷속 + 물 위, 낮,
춘희, 미역을 따서 오르고, 수면 위에서 숨비소릴 내며, 힘이 든지, 헉헉 대는, 다시, 물로
들어가는,
9. 중환자실 안, 다른 날, 낮,
만수, 온몸에 붕대를 감고, 누워 있는,
은기, 해선 뒤에 숨어서, 두렵고 슬프게 만수를 보는, 해선, 눈가 붉어 참담한 맘으로 물수건으
로 만수 손가락을 정성스레 닦아주는,

은기 (슬픈, 아빠가 이상한, 두려워 작게) 엄마.. 아빠.. 왜 안 일어나?
 해선 (물수건질하며) 아프다고 했잖아. 열 밤씩, 세 번 자고 나면 일어날 거야.
 은기 됐는데, 열 밤..
 해선 (물수건질만 하며, 속상해, 괜히 투박하게 말하는) 열 밤 됐지, 열 밤씩 세 번은 안 됐어.
 은기 (만수만 보며) 됐는데...
 해선 (손수건으로 닦기만 하며, 속상해, 괜히 툭툭 말이 나가는) 열 밤씩 세 번은 서른 밤이야.
 숫자도 못 세면서, 우기지 마
 은기 (울 것같이, 속상해, 입을 내밀고)...엄마..나빠.
 해선 (속상한, 눈물이 뚝 흐르는, 만수의 몸만 닦는)
 해선모 (속상한, E) 너 미쳤구나?